

광주 광산·북구 고교 원거리 배정 우려 여전

광주·전남 원서접수 시작

수피아·동아여고 등 12학급 감축

전남지역 고교 15학급 줄어

중 3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민이 시작됐다. 광주·전남교육청의 평준화 일반고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원서 접수기 이번 주 시작되면서다.

자녀 진로를 크게 좌우할 고교 배정 문제인데다, 광주 일부 자치구의 경우 고교 신입생 숫자가 많다보니 선호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근거리 학교 진학이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을 당할 지 모른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광주 22일, 전남 19일부터 원서 접수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2017학년도 후기 일반 고등학교 원서를 접수한다.

광주의 경우 거리와 관계없이 고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지원추첨배정(선배정)으로 정원의 40%를 선발하고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배정가능고교를 선택하는 후지원추첨배정(후배정)에서 60%를 뽑는 고교 배정 방식은 그대로다.

학생들은 거리에 상관없이 1·2지방 고

교 2개를 선택해 지원(선지원)하고 이후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통학 시간(대중교통)이 40분 이내인 '배정가능고교'를 4~9개까지 후지원해 적어낸다.

후지원 학교는 고려중의 경우 5개, 광덕·서석중 7개, 동성여중 6개, 수피아여중 7개이며 남녀공학인 금당중은 남·여 각각 7개, 풍암중은 여 5개, 남 6개 등이다. 합격자는 1월 5일, 추첨 배정은 2월 3일 이뤄진다.

전남지역은 19일부터 23일까지 원서 접수에 들어간다. 전남 모집 인원(정원 내)은 평준화 지역인 목포·여수·순천이 각각 11개교 2352명(목포), 7개교 1800명(여수), 10개교 2910명(순천) 등이다. 평준화 지역 고교 합격자는 내년 1월 3일 발표하고 내년 1월 13일 학생들을 추첨 배정한다.

◇수피아·동아·대광여고, 2개 학급 감축 =광주시교육청은 고교 신입생 수가 줄면서 전년도에 견줘 모두 12학급을 줄였다. 광주교육청이 파악한 내년도 일반고 신입생 규모는 1만4286명으로, 전년도(1만6154명)에 비해 1868명 줄어들었다. 34.8명이던 학급당 학생 수도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32.4명으로 줄었다.

교육청은 특히 동·남구 학생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동구지역 전남·살레시오·조대여고, 조대부고는 1학급씩 줄였고 남

구지역 설원·대성여고도 1개 학급을 감축했다. 남구지역 수피아·대광·동아여고는 2개 학급씩 줄였다.

반면, 광산지역에서는 고교 신입생 증가로 인한 학급 부족을 해소하는 취지로 송덕고(2학급), 정광고(1학급) 학급을 늘렸다.

전남도 전년도(중학교 3학년생 2만2182명)에 견줘 올해 중학교 3학년생(1만9485명)이 줄면서 고교 학급 수를 15학급 줄였다.

◇광산구·북구 학부모 불안감 여전 =광주지역 일반계고 신입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광산구와 북구지역은 고교 신입생이 많다보니 학부모들의 걱정은 사그라들지 않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이 파악한 광산구 26개 중학교 3학년생은 5976명이지만 동일지역 16개 고교 내년 1학년 규모는 340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북구도 27개 중학교 3학년생(5258명)이 같은 지역 21개 고교 1학년 숫자(4200여명)보다 훨씬 많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신입생 숫자가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많으니 자신의 자녀가 학교 배정 과정에서 희망·선호 학교를 배정받을 확률이 낮아지거나 집에서 먼 학교를 다녀야 하는 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역대학 위기 극복, 총장이 팔 건었다

조선대 7만2000명 모금운동

순천대 총장, 고교 10곳 홍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매년 줄고 있는데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등록금을 올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지방대는 매년 인건비 인상 압박에 시달리면서 아우성이다.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들어오는 학생도 수도권 대학으로 옮겨가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다.

대학 총장들이 직접 팔을 걷어 부친 것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크기 때문이다.

강동완 조선대 총장은 최근 'CU A-gain 7만2000 프로젝트' 추진을 본격 선포하고 나섰다. '어게인(again) 7만 2000' 프로젝트는 조선대 설립이 7만 2000명의 화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이뤄진 점에 착안한 프로젝트다.

학생·학부모·동문, 지역민 등을 중심

으로 한 소액기부운동을 추진, 모아진 기금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산술적으로 7만2000명이 1만원씩 12개월간 기부할 경우 86억 4000만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총장은 조선대를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재정난 해결 뿐 아니라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직접 챙기고 있다. 현금 뿐 아니라 부동산, 유가증권, 유품, 미술품, 특허, 기타 지적 재산권 등도 받는다.

박진성 순천대 총장은 신입생 확보에 적극적이다. 박 총장은 지난 2일 효천고를 시작으로 매산고·감남여고·매산여고·순천고 등 순천 내 10개 고등학교를 돌며 학생들과 만났다. 미래 비전과 건강이 특장 주제지만 미래의 신입생들 앞에서 대학 장점과 이미지를 홍보하는 전략도 담겨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주 고입전형 일정(후기고)

	평준화 일반고	비평준화 고교
내신성적 산출기준일	전 학년 성적 12월 20일	
원서접수	12월 22일 ~ 27일	
합격자 발표	2017년 1월 5일	
배정발표	2월 3일	
등록기간	2월 3일 ~ 10일	1월 5일 ~ 12일
추가모집	없음	1월 13일 ~ 19일

※비평준화고:광일고, 호남삼육고, 송의고·서진여고 보통과

전남 고입전형(평준화 지역)

원서접수	12월 19일 ~ 23일
합격자 발표	2017년 1월 3일
배정 희망원 제출	1월 4일 ~ 6일
배정발표	1월 13일
합격자 등록	1월 17일 ~ 20일

도서관 방학 프로그램 신청 서두르세요

올 겨울방학을 알차고 즐겁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긴 방학이 다가오면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학 프로그램을 챙겨보려는 학부모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광주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에도 알찬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인데다, 수강료가 무료인 프로그램도 적지 않다. 선착순 접수인 만큼 서두르는 게 필수다.

중앙도서관은 ▲초보 미술사 ▲실험왕 ▲창의력 미술 ▲여행 세계지리 등 4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3일부터 23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미술 속 숨겨진 과학 원리를 이용하도록 돕는 초보 미술사 강좌는 아이들의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이다.

중앙도서관 석봉분관에서는 ▲푸드로 그래픽 읽기 ▲오감이 똑똑 공예교실 ▲어드벤처 세계지리여행 ▲과학실험 놀이터를 마련,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20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책을 읽고 생각과 느낌을 음식으로 표현하는 어드벤처 세계지리여행은 재미있고 있고 책과 가까워질만한 프로그램이다.

송정도서관은 ▲꿈지락 공예교실 ▲내 손으로 베이킹 교실 ▲생각이 번쩍 과학실험 ▲친구랑 놀이체육 등 4가지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내 손으로 베이킹교실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이 직접 빵과 쿠키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많아 체험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19일부터 선착순 접수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1월 16일부터 운영할 ▲훈빛은 도예교실 ▲꽃송이

광주 주요 도서관 프로그램

중앙도서관 ~12월 23일 선착순 모집 초보 미술사·실험왕·창의력 미술 등
중앙도서관 석봉분관 12월 20~29일 선착순 모집 푸드로 그래픽 읽기·공예교실 등
송정도서관 ~선착순 모집 베이킹 교실·과학실험·체육놀이 등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2월 20일~2017년 1월 6일 선착순 모집 도예·농구·스키치 교실 등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12월 21~30일 선착순 모집 만화로 배우는 고전읽기 등
금호평생교육관 ~12월 30일 선착순 모집 액자·타임캡슐·복주머니 만들기 등
구교실 ▲자신감 UP 스피치 등 11개 프로그램 수강생을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는 만화로 고전을 이해하고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자는 취지로 ▲만화로 배우는 고전 읽기와 ▲독서 능력을 키우기 위한 초등학생 독서코칭 프로그램 수강생을 21일부터 모집한다.
금호평생교육관은 겨울방학 기간, 초등학생들을 위한 액자·타임캡슐·복주머니 만들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접수는 오는 30일까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으로 맛 더한 김장 김장 시즌을 맞아 김장 나눔 봉사활동이 줄을 잇고 있다. 동신대(총장 김필식)도 최근 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대학 사회봉사단원 50여명을 중심으로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1700포기에 달하는 김장을 담겨 동구, 북구와 영광지역 독거노인, 광주외국인노동자회 등에 전달했다. <동신대 제공>

내 새끼는 내가 먹여 살린다!

아제 감성 느와르

아빠本色

매주 수요일 밤 9시 30분

주영훈 YoungHoon Joo 김구라 Gura Kim 이한위 HanWi Lee

CHANNEL